



대한예수교장로회
내수동교회

새벽 예배 설교 요약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1:35)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적 · 사회적 위기를
무릎으로 극복합니다

2020년 6월 22일(월) - 26일(금)

☆ 시간 & 장소 : 월 - 금 5:30 온라인 / 본당

☆ 말 씀 : 히브리서 강해

새벽 기도 말씀을 시청하고 싶으나 상황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각 교구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종일 시청 가능한 새벽 기도 말씀 인터넷 주소를 개별적으로 보내드립니다.

4.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6 또 그가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말씀 요약

<전달자>와 <중재자>

1-3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시냐? 6가지였다. 그런데 그분이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자>의 역할을 하신다. <중재자>란 <전달자>보다 더욱 더 적극적인 개념이다. 더욱 더 적극적인 역할이 바로 <중재자>다. (<전달자>는 전달을 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중재자>는 양편을 화해시키고, 양편 모두에 대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구약성경 배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는 ‘천사’였다. 그런데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중재자가 계신다. 4-14절은 6가지로 설명한다. 왜 그는 탁월하신 중재자이신가?

- ① (5절) 하나님과의 관계성 / (6절) 만아들
- ② (6절) 천사의 경배를 받으심
- ③ (7-8절) 종과 주인의 격차(피조물과 창조주의 격차) - 어마어마한 격차 때문에!
- ④ (8-9절) 성품과 사역에 있어서도 탁월하시다
- ⑤ (10-12절)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 - 시간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영원하심
- ⑥ (13-14절) 비교할 수 없는 위치(자리) - 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가까이 계심

① (5절) 하나님과의 관계성 / (6절) 만아들

시2:7, 삼하7:14. 하나님은 메시아를 향하여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천사는 아들이 아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친밀함보다 더 가까울 수 있는가? 천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것을 넘볼 수 없다. 즉 ‘더 이상 가까울 수 없을 정도로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바로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이다’ 이런 분이 우리의 중재자이시다.

[적용]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아버지께 거절되는 법이 없다.

관계의 가까움과 친밀함이란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요일5:14-15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왜 담대함을 가진다는 것인가? 그것은 요일5장의 문맥을 기억하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 특별하다.

요일5: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친밀함이다.

[예]고후1:20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약속은 거절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받으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당연히 이룬다.

※만아들(6절) - 왜 특별히 만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일까?

창49:3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단지 순서상 첫 번째 소생이라는 의미보다는, 영광과 권세를 강조한다.

출4:22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광이 특별히 높다는 것을 강조한다.

롬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쉬운>)”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들의 대장, 통치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피조물은 아니시지만,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표가 되게 하신다.

★골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시간적으로 먼저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니다(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순서상 맨 앞에 있는 분**이고, **가장 높으신 대표가 되신다**는 뜻이다. 피조물의 머리와 주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것이다.

★골1: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가 새창조의 으뜸이 되심으로서 성도들의 대표가 되고, 성도들도 예수와 같은 새창조의 영광 속에 포함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요약]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우리도 아들(딸)이 되었는데, 문제는 예수께서 만아들이 되셨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①아들로서의 친밀감(가까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②특별히 역할, 즉 대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만아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아들들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대표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역할이다. ‘총대를 맨다’는 말을 하는데, 만아들이 없다면 총대를 맨 수 있는 대표가 없는 것이다. 결국 그토록 가까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계시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표 역할까지 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버지께로 기꺼이 가지고 나아가 주실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1 - 유아 / 유치부

- 오늘의 중보기도
1. 코로나19 기간 동안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2.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3. 말씀의 생명력이 아이들의 인격과 마음을 선하게 움직여 나가게 하소서.

memo

또 그가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이다 말씀하시며

말씀 요약

② 천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6절)

“다시”는 a.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b. ‘또 다시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NIV.NRSV) 중요한 것은 천사가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는 것!

신32:43 “너희 민족들이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히브리어구약성경) “모든 나라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흘린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당신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속하여 주신다.”

(70인역) “하늘이여,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로 그를 경배하게 하라. 나라들이여, 그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가 그의 자녀들의 피를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본문6절은 이 말씀(70인역)을 인용한 말씀인데, ★히브리서기자는 신32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복사역’을 바로 예수께 적용함.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구원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께 천사들이 경배한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성경기자의 관점과 주장이다. 히브리서 성경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70인역을 인용하면서, 천사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천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이지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다. 천사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천사에 비해서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천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으시다. 예배하는 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 둘 사이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적용] 구약시대 성도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을 때, 그들은 말할 수 없이 두려워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신가? 두려움을 받았던 바로 그 천사들이 아니다. 오히려 천사들이 두려워하신 분,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하신 분! 우리는 그분을 중재자로 모시고 있다.

하나님과 동일한 동급의 영광과 광채를 가지신,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성부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지 않은가? 친밀도에 있어서, 왕과 가장 친밀한 아들께서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주시는 것도 감사하다. 그런데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주신다면 든든한 일이 아닌가? 왕보다 못하지만, 왕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위로가 된다. 그러나 왕과 동등하고 왕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왕! 그 왕이 우리를 책임져주신다면 든든하지 않은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2 - 유년 / 초등부

- 오늘의 중보기도**
1. 코로나19 기간 동안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2. 각종 미디어의 종이 되지 않고, 통제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3.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듣는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memo

6월 24일 (수) 히브리서 1:7-8

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말씀 요약

③종과 주인의 격차 (7-8절)

천사 - <바람> <사역자> <화염의불꽃(심판집행자)>

아들 - <하나님> <보좌> <심판 지시자>(홀)

<시45> 결혼의 노래

[고라 자손의 마스길(교훈),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백합화 곡조)에 맞춘 것]

[1]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썽씨가 뛰어난 서기관
의 붓끝과 같도다

[2]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
을 주시도다 - 신랑입장

[3]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4]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
이다 [5]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엄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데
다 - 신랑에게 주는 권면

[6]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 신랑의 영광

[7]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
쁨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6절의 앞과 뒤 모두 ‘왕’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왕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
을 왕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왕에 대한 과장적 표현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구약성경에서 재판
장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린다는 것이다.

왕은 곧 하나님이시다. 오실 왕, 메시아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해석이
다. “성부께서는 자기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부께서는 자기의 성육신하신 아들을 보고
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신다. ‘아들에 관하여는 성경이(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자들로 하여금 듣고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A.W. Pink)

★그리스도와 천사의 차이와 간격이란, 한마디로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간격이다. 비교가 불가능하다. 종과 주인의 격차이다. 천사가 감히 우러러 쳐다볼 수 없는, 높으신 분!

바로 앞의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와 비슷한 주제이다. 그러나 경배를 받으시되,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차이의 정도를 다시금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바로 천사가 경배할 뿐 아니라, 그 천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창조주,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중재자로 오셨다.

[적용] 높으신 분이 우리의 중재자, 우리를 위하신다면, - 우리는 그분과 같이 존귀하고 높은 자들이다. 천사들이 감히 우리를 쳐다볼 수 없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3 - 중등/고등부

- 오늘의 중보기도**
1. 코로나19 기간 동안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삶의 에너지가 되게 하옵소서
 2. 각종 미디어의 종이 되지 않고, 통제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3. 세상 문화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memo

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9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말씀 요약

④ (8-9절) 성품과 사역에 있어서도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시다

그분의 탁월하심이라는 것이 그분의 <존재적 차원>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시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공평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다만 그렇게 너그러운 받아주실 따름이지, 하나님을 가득하게 채우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통해서 만족히 여기셨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만족히 여기셨다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족히 여기도록 하셨을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적용] 그리스도의 사역은 만족한 사역이었다. 하나님의 만족시켰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족하게 만족케 하는 존재다.

사53:10-11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전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 하리로다” ->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역/ 그 결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이 받아들여진다.

[적용] 자신감을 가지라. 당당하라

젊은이를 위한 기도 1 - 대학/청년부

오늘의
중보기도

1.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겸비하며 여호와와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2.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3.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를 변화시킬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memo

6월 26일 (금) **히브리서 1:10-12**

- 10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말씀 요약

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10-12절) - 시간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심

아들에 대한 소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즉 “아들에 관하여는” 즉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하나님께 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즉 **10절은 바로 아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못 박는다**. 위에서는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했지만, 여기서는 “주여”라고 지칭한다.
“주여”라고 하는 것은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이다.

★ 이분은 잠시 이런 영광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가지신 분이시다.

기억해야 할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만 그러하시다. 하나님만 시작도 없

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다. 영원하심이란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분하는 조건이다. 피조물과 창조주는 영원히 건너지 못할 차이(다른 차원)가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한다. 천사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적용] 영원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는 영원을 내다보고 살아야 할 것이다.

⑥비교할 수 없는 위치(자리) 13-14절 - 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계심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앞에서 아들에 대한 논증을 했지만, 이곳에서 다시 한 번 아들과 아버지의 친근함, 친밀성을 강조한다. (앞에서는 아들이라는 존재성을 강조했다면, 이곳에서는 친밀성을 다시금 부각한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가까운 위치 - 이 자리는 천사의 자리가 아니라, 유일한 아들의 자리다. 아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와, 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엄연히 다르다 - 그러므로 이분은 우리에게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다.

(14절) 천사는 메시지(말씀)을 전달하는 부리는 종. 그러나 예수는 바로 그 말씀 자체. 성육신하신 말씀 자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 자체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령(천사)’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오늘의
중보기도

1. 주일 현장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 중심이 되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2.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3. 주일학교 인터넷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memo

